

전주매일

특수목 적주별 병마로 면
세인 신경외과 의원
병명 카 정문 ☎ 063220-6600
전주시 참선로 효자 변 2길 6번지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도 11911 무료 24시간 응급전화 119
* TEL 063-858-1800 ~ 2410 * FAX 063-858-0011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음 4월 22일) 제18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6-9700

도, 정부예산 확보 막바지 전력투구

대선 공약·부처 재정사업 위주 집중활동 전개

전북도가 2018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부처예산 편성 단계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2018년 부처예산편성(안)에 대한 지역공약사업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정리중이며, 오는 20일까지 예산(안)을 기재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19대 대선공약과 연관된 정부의 국가예산사업이 부처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하고, 또한 도정 핵심사업 중 부처와 이견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각 실국장이 연일 정부예산편성사를 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6~17일에는 행정·정무부처사가 주요 5개 부처를 잇달아 방문해 국가예산 우선사업 3개 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 활동을 펼친다.

16일 김남태 행정부처사는 먼저 기재부 장관인 태광성실사과장을 찾아가 전북도 예타가 집행중인 '새만금 수목원 조성', '소리창조물러스터 조성', '양천보호용박해물산업 육성사업' 등 3개사업 모두가 공약과 관련된 사업임을 피력하며 예타평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오상우 국토교통예타과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새만금사업 용지매입은 국가가 주도해야함을 강조하며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과 '국가별 경험특구 조성' 사업의 예산을 반영 요청했다.

특히 대한 지역공약사업인 '새만금 300구축 5개사업'의 조기 완공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김제대학교의 재가설사업'의 시급성과 위험도를 개선 위해 '무주-살천 국도' 및 '부안-흥덕 국도전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부처사는 해수부 박준권 항만국장을 방문해 '군산항 항로조성'이 민간사업 개발로 지연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의 전환과 새만금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해 '해안권 신항만 건설' 사업 착기 중공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토부를 방문해 '전주역사 정안개발'과 '새만금 복합산업단

지 및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물동량 처리를 위해 '새만금~대야간 철도건설'과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것을 건의했다.

이어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과 '서부내륙권 관역관광개발사업', '파랑시티 조성' 사업의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17일에는 각종 정부부처사가 산림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유정열 소대부품산업장학회, 장대진 참의산업정책관 등을 만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작물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저출력 X-RAY 검사기 가능한 탄소복합재 경량판대이나 개발사업', '장비 지역특화형 디자인센터 설립'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남태 부처사는 "오는 20일까지 예타공약과 정책사업 위주로 새정부 부처예산편성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며 도차리는 부처 차관급, 기초장관들을 대상으로 인사 동향에 맞춰 방문하고, 아울러 도정 현안사업들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 임의에 대응해 나감 계획"이라며 "2018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재난관리평가 '우수'

전북도가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2017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재난관리업무 실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유해 재난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고 선진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전북도는 재난관리 역량강화인원링 추진과 연중 지속적인 지표관리 실시로 지난해에 비해 달성도가 크게 향상돼 우수등급 선정과 함께 노력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인재용 기자

무르익은 고창의 봄, 빨갛게 수놓은 꽃양귀비...



고창의 봄은 철보리의 푸르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창을 뉴타운 인근 풍대에 꽃양귀비가 붉게 피어 무르익은 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고창을 뉴타운 인근에 계절별로 꽃양귀비와 코스모스를 심고 주요도로변과 녹색생태공원, 휴대 들이 풀밭, 꽃밭일출과 경기, 머리골드까지 십이 군인과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아름다운 봄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문 대통령 탄평인사 '단행중' ... 박원순·안희정계 대거 포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박수현 대변인 등 '文 최측근' 양정철 전 비서관, 2선후퇴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탄평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관공진 구상에 박원순계 인사에 이어 안희정계까지 줄어 안을으로써 문 대통령의 탄평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 대선 겸선 당시 안희정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전 머민주 의원을 임명했다.

대통령의 입 이다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 활화를 누구보다 잘 공유해야 하는 자리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을 수 있는 최측근 인사를 앉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변인 임명은 다소 과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대통령 인사 임명이 이번에도 지켜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비서관급과 수석비서관급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기용하며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 임종직 대통령비서관과 핵심한 사외이사인 김수현 사회수석, 조현욱 인사수석은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임 실장은 2014~201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박 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하 수석은 임 실장의 정무부시장 후임으로 2011년과 2014년 박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거 총괄을 맡아 박원순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김 수석은 2014~2017년 서울시 심포럼인 서울연구위원으로 박 시장의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조 수석은 2011년 선거 캠프에서 박 시장을 도왔고, 이후 서울시에 들어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엄연히 말하자면 하 수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박 시장의 사외(리얼)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욱 정권 초기 청와대 참모들을 다룬 책 '박근혜의 참모들'을 다룬 박수현 전 대변인의 책이 나왔고, 그 공간이 생겼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핵심으로 분류된 양정

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빨리서 그라운드를 응원하는 시간 중 한 사람으로 조용히 내려와"며 2선 후퇴를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정권교체를 갈구했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며 "나서면 '재판' 빠지면 '비선' 괴로운 공약이 있다. 저의 퇴장을 끝으로, 해관이나 친문·친노 프레임이나 상황이나 하는 남은 언어도 거둬들이고"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해석과 문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최측근의 2선 후퇴를 통해 그동안 사달려왔던 '친문 패권주의'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초기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여권이 마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재용 기자

핵심 INDEX
4면 - KBS 문화뱅크, 19일 전북에서

한·미, 6월 말 정상회담 북핵 완전 폐기 방안 모색

한·미가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의를 청와대 외교·인보TF 단장과 대류 포진지 해아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여인관에서 만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측은 6월 말 워싱턴에서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상세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간 개인적 유대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상호 신뢰와 관련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의정교향도 이뤄졌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했다. /뉴시스

I wish to be a host of 2023 World Scout Jamboree in Saemangeum, Korea!
기회의 땅,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지원합니다.

더 큰 열정으로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창의적이며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부안군의회